

2019년 희곡우체통 낭독회 7차 초대작 선정평

<삼차원 타자기>

타자기 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엔 대부분 타자기를 썼습니다. 젊은이들이 멋진 전동타자기 한 대 갖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컴퓨터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2019년 희곡우체통 7차 초대작은 타자기를 소재 삼은 <삼차원 타자기>입니다. 특별한 타자기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시대에 밀려난 작은 물건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인물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상상력과 입담이 싱싱합니다.

‘삼차원 타자기’ 역시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타자기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저 허구의 이야기만 능란하게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갈피 사이에 현실의 부조리와 인간의 탐욕을 배치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그럼에도 지켜야 할 가치를 반추하게 해줍니다. 잘 짜여진 이야기 속에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게 우리들을 성찰하게 해주니, 귀한 재능입니다.

연극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 하나가 이야기만들기(storytelling)라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연극은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지만 허구의 영토에 집을 짓는 법이라, 이야기꾼으로서의 작가의 상상력과 그것을 완성해내는 근성이 중요한 법이지요. 더러 거친 구석들이 보이긴 하지만 <삼차원 타자기>는 독창적인 한 이야기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옛날, 화롯불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가면을 쓴 광대의 이야기를 흘린 듯이 들었겠지요. 그 때처럼 관객 여러분도 <삼차원 타자기>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즐겨 주십시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시요.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시요.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